

물가 비상·고용 불안…벼랑 끝 내수경제

환율상승 여파 시차 두고 식품가격 영향 미칠 듯

청년 고용률 1.4% ↓…제조·건설업 부진 지속

미국발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도 물가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 지표는 양호하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와 건설·제조업 일자리 부진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물가 상승과 청년 고용 부진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를 더 얼어붙게 한다. 정부는 이번주 끝난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과 제빵가공품 4000에 할당관세를 실시해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한 두 품목은 최근 물

가가 상승한 가공식품의 주재료다. 긴급 할당관세로 식품업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은 최근 가공식품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보다 3.6%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웃돌았다.

식품기업들은 연초부터 이달까지 일제히 주요 품목의 값을 올렸다. 여기에는 컵라면·봉지라면, 카레, 맥주는 물론 아이스크림, 우유, 과자 등도 포함됐다. 외식업계도 빵, 케이크, 커피 등의 가격을 인상했다. 환율 상승은 시차를 두고 수입물가를 올려 향후에도 주요 품목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도

집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기준 추산한 산불 피해 현황을 보면 여의도 면적(2.9㎢)의 13배를 넘는 농작물 3795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시설하우스 715동, 축사 237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8000두 등이 소실됐다.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안동과 청송 등은 사과 주산지로 올해도 사과 값이 급등하는 ‘금사과’ 사태가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컸다. 다만 정부는 해당 시군은 11월 이후 유통되는 후지 품종의 주산지이며, 추석 전후 유통되는 홍로 주산지는 산불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피해지역은 사과 외에도 볼배추, 마늘, 건고추, 자두 등을 주산지로 하고 있어 영농 기술 지원과 약제공급을 통한 생육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비를 떠받치는 고용도 청년과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부진한 모습이 다.

취업자 수 전체 지표는 3개월 연속 전년보다 1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보이는 듯하지만 그 이면은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허리인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4%포인트(p) 감소한 44.5%로 집계됐는데,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그 여파가 20대 후반까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도 1년 전보다 7만1000명(2.9%) 증가한 35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공공(8만7000명)과 복지(21만2000명) 부문의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취업자 비중이 큰 건설업(-18만5000명)과 제조업(-11만2000명) 일자리는 각각 11개월,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내수가 한동안 살아나지 못하면서 제조업 중심일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발 관세 직격탄의 영향이 더해지면 향후 그 충격이 증폭될 수 있다.

/뉴스

전남, 관광 분야 창업 지원

내달 12일까지…최대 2천만원

전라남도도는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관광 분야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5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참가자를 5월 12일까지 한 달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 서비스, 관광 인프라, 관광·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관광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19세부터 55세 이하(2025년 1월 1일 기준)의 전남 거주자나 전업 예정자로,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로서 관광업종 추가 창업 예정자다.

전체 신청자 중 30명을 선발해 관광 창업 전문 교육과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명의 창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씩, 총 2억 원의 창업 실행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hyejun@jinto.or.kr)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

전남,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에 도전하세요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재)함계일하는재단의 협업사업인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대상 마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청년조직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성장 사업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 최대 4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우수 수행팀에 추가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정 청년마을이나 청년마을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25일 오후 3시 30분까지 공식 누리집(<https://mgse.co.kr/nanoom/notice>)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30일까지 적격심사, 5월 9일까지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이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5월 23일까지 대면심사가 이뤄진다. 선정 결과는 5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 개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사회공헌 모델 개발 등 지원 유형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조순익 기자

무안공항 폐쇄 3개월 연장…방위각 시설 개선공사 착수

재개 시점 추후 논의…한국공항, 7개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

무안공항의 폐쇄(NOTAM) 기간은 18일까지였다. 그런데 방위각제공사설(Localizer) 개선공사 및 공항 재개에 따른 막바지 공사로 재개 시점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였던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을 7월 18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폐쇄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공사 상황을 보고 재개 시점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안공항의 폐쇄기간이 연장된 데에는 여객기 참사의 회생을 키운 방위각제공사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착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안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는 사고 3개월여 만에 무안공항과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7개 공항에 대해 방위각제공사설 개선공사에

착수한다. 해당공항은 제주·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공항 대상이다.

방위각제공사설을 기체의 활주로 이탈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재설계·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사는 항공정책, 토목, 환경, 건축, 항행시설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증위원회를 공항별로 구성해 시설제용역 산출을 검증할 계획이다. 무안공항부터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무안=김삼환 기자

현대차, 중소협력사 전시 지원…“9400만달러 수출 상담”

북미 최대 모빌리티 기술 전시 ‘WCX 2025’ 공동 참가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관’에 마련된 중소 부품협력사들의 부스에서 협력사 대표와 관계자 등이 바이어들과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그룹이 중소 협력사와 함께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에 참여해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이에 따른 수출 상담 실적만 9400만달러(1341억원)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은 24개 중소 부품협력사와 함께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힐튼필드 플레이

스에서 개막한 북미 최대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 ‘WCX’(World Congress Experience) 2025에 공동 참가했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관을 구축하고, 협력사별 전시 부스를 마련해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전시에는 동일기계공업, 세이나

이앤디, 성원피에프, 광성강관공업, 성립첨단산업 등 24개사가 참여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수출 상담 실적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 84개 기업 94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협력사는 견적 요청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계약 일정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중소 부품협력사들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별 세미나도 마련해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중소 부품 협력사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여했고, 앞으로 인도와 일본, 독일에서 열리는 글로벌 부품 전시회에도 중소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공동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이 중소 협력사들을 지원해 최근 7년간 전시회 참가로 달성한 수출 계약 실적만 900억원 을 넘는다.

/뉴스

스마트제조 기술 공급사 950곳 모집

중기부, 지원규모 3배 이상 확대…AI 평가모델 적용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오는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25년 1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려는 공급기업에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 역량 진단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2년간 연 300개사의 역량 진단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작년 우수기업 등급인 레벨 2 플러스를 득점한 기업은 93개사로, 2023년 75개사 대비 24% 증가했다.

2년 연속 참여한 디엠테크컨설팅은 2024년 공급기업 역량진단 접수

가 전년 대비 26.5% 향상, 레벨 3 마이너스 등급에서 레벨 3으로 뛰어올랐다.

사업은 기본진단과 심화진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기본진단 시 경영 및 기술 평가에 AI 기반 기술성 평가모델(KTRS-FM)을 적용,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한편 중기부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과 스마트 지원사업 공급기업의 통합관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역량진단 지원대상을 기존 스마트제조에서 스마트 서비스 공급기업까지 넓히고, 3배 이상 늘어난 950개사로 확대한다.

/권현안 기자

열연 코일 스틸밴드 결속 자동화장치 개발

광양제철소, 비용절감·안정성 구축



광양제철소 2열연공장이 열연 코일 스틸밴드 결속 자동화 장치 개발·상용화에 성공하며 비용절감과 작업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열연공장에서 열연 코일이 생산되면 두루마리 휴지 모양으로 감겨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틸밴드로 묶어 용접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잔여 스틸밴드의 길이가 코일의 둘레보다 짧으면 이를 사용할 방법이 없어 폐기한 후 작업자가 2인 1조로 스틸밴드를 수작업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광양제철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코일 포장에 전문적인 포스코엠텍 등과 협업해 개발에 착수했다. 약 3년간의 연구 끝에 광양제철소는 잔여 스틸밴드의 끝 부분을 새로운 스틸밴드와 자동 용접해주는 장치를 개발·상용화에 성공했다.

스틸밴드를 이어 붙이는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밴드 사용량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인 만큼 광양제철소는 2열연공장에 서만

연간 3억 6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화법에 따라 기존처럼 작업자가 2인 1조로 스틸밴드를 수작업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위험 요소가 원천적으로 제거돼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서간, 회사간의 협업도 눈길을 끌었다.

구매부서에는 현업에서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내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했으며, 용접기생산 전문업체인 대이용점기&툴시스템사도 포스코의 성과 공유제(Benefit Sharing, BS)를 통해 개발에 함께했다.

고재운 광양제철소장은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같은 큰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제철소의 미래경쟁력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여수·광양항 온라인 채용관 ‘YG Job바다’ 상시 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와 광양상공회의소가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채용관 ‘YG Job바다’를 4월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YG Job바다’는 ‘일자리가 바다처럼 넘쳐나는 여수광양항’을 의미하며, 작년 시범 및 확대운영을 통해 154개 기업이 총 1,350개의 일자리를 YG Job바다를 통해 채용공고 했다.

공사와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해에 이어 운영 실적과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채용관을 4월 10일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을 연중 모집하는 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